

노년기 사회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적 자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정 옥 분¹⁾ 임 정 하²⁾ 정 순 화³⁾ 김 경 은⁴⁾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한국 노인들의 사회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원인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 자원인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총 31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직접 효과 모형과 완전 매개 효과 모형에 비해 연구모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 중 경제적 수준은 직접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개인적 자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사회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으로도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적 자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다집단 분석을 이용해 연구모형의 성차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 남자노인 집단과 여자노인집단에서 모두 개인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사점이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의 효과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주요어 : 성공적 노화, 자원, 신체 기능, 인지 기능,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지

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명예교수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E-mail : jhlim@korea.ac.kr)

3)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전문교수

4)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I. 서론

한국 사회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 7.2%로 나타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2012년 11.5%인 노인 인구 비율은 2026년 20.8%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2).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즉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요인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학자들은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령의 증가가 삶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65세 이후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보고도 찾아볼 수 있다(Mroczek & Spiro, 2005). 또한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안녕감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개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경제적 자원이나 이들의 상호작용이 관련될 수 있음을 밝히고(Pinquant & Sorensen, 2000), 이들 요인을 자원의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노화에 따른 여러 자원의 상실 가능성이 노년기에 직면해야 하는 불가피한 일임을 감안할 때, 노년기의 성공적인 삶에 중요한 자원과 이들 자원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1986년 성공적 노화를 주제로 세계노년학회가 개최된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Rowe와 Kahn(1987)은 성공적 노화란 연령증가와 관련된 생리적, 심리적 감퇴를 피하는 것으로 개

념화하고, 평균보다 나은 생리적, 심리적 특성을 가진 사람을 성공한 노인이라고 하였다. 이후 Rowe와 Kahn(1997, 1998)은 적극적 사회참여모델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필요한 요소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성공적 노화의 핵심 개념으로 질병 및 장애 예방, 높은 수준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유지, 적극적인 사회활동참여를 제안했다. 즉, 성공적 노화란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고 높은 인지 능력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며 삶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들 세 가지 구성요소들은 위계를 이루고 있어서, 질병과 장애가 없으면 인지 및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가 더 쉽고, 인지 및 신체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적극적 사회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후 Crowther, Parker, Achenbaum, Larimore와 Koenig(2002)는 Rowe와 Kahn의 모델에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긍정적 영성을 추가하였다. Vaillant(2002)는 치유적 관계, 지지적인 결혼생활, 지속적인 인생 참여, 성숙한 방어기제 및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성공적 노화를 예측할 수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학자들은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문화에서 성공적 노화를 보다 적절히 개념화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김미혜와 신경림(2005)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을 제시하였고, 김동배(2008)는 자율적 삶, 자기완성지향, 적극적 인생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타인수용을 제시하였다. 전자에 비해 후자에는 자율성 및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공적인 노화에 대해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개인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김동배(2008)가 제시한 개념을 바탕으로 성공적 노화를 정의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성공적 노화란 중용적인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기완성을 지향함과 동시에 자기와 타인을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나이가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정옥분(2008)은 노년기 삶을 위한 복지정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 사회 내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적 안정, 신체적, 정신적 건강, 여가활동과 자원봉사, 가족원의 지지, 사회적 지원이 한국 사회 내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요소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 맥락에서의 경제적 안정 및 관계의 특성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한편, 몇몇 학자들은 인간이 느끼는 안녕감이나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후 왜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에서 정신병리로 악화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Caplan(1964, 1974)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두 개의 핵심자원을 발견하였다. 하나는 자기주도

성과 같이 자기(self)와 관련된 자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환경적 자원이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자원이론이 발표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Thoits(1994)의 핵심자원이론(Key Resource Theory)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핵심자원을 소유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원들을 보다 쉽게 활용한다. 여러 핵심자원들 중 197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적 지지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후 등장한 통합자원이론(Integrated Resource Theory)은 핵심자원이론과는 달리 하나의 특정 자원보다는 자원이 개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동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자원관리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이다(Hobfoll, 1988, 1989, 1998). 여기서 자원이란 건강, 내적 평안, 자아존중감 등과 같이 그 자체로서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과 금전, 사회적 지지, 신용 등과 같이 개인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자원관리이론에서는 자원의 손실이나 손실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므로 자원을 스트레스 대처의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 특히, 특정한 자원 자체보다는 이러한 자원들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자원관리이론에서는 자원의 손실과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뿐 아니라 자원의 획득에도 관심을 둔다. 자원손실 상황에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에게 정서적인 유예상황을 제공해주고 지속적인 목표추구능력을 증대시켜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Billings, Folkman,

Acree, & Moskowitz, 2000; Wells, Hobfoll, & Lavin, 1999).

이처럼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에 대한 연구가 자원이론으로 발전되었으며,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요인들도 하나의 자원의 관점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Baltes와 Baltes(1990)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최적화 모델(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도 자원이론의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인지적 자원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역할 상실, 경제적 상실 등 수많은 자원의 상실을 경험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남아있는 자원을 재할당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자원을 상실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이를 다른 자원으로 대체하거나 자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것은 노년기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맞게 잘 할 수 있는 것만을 선택하여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노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다른 대체 자원을 통해 스스로 보상해 나가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핵심이라고 간주하였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자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건강(김경연, 정여진, 2006; 신학진, 전상남, 2009; 전상남, 신학진, 2009; 홍현방, 2003)이나 경제수준(김경연, 정여진, 2006), 노인교육(신복기, 성향숙, 김수영, 2006), 사회적 관계(강혜원, 2012; 오창섭, 정원

길, 2009), 활동수준(나향진, 2002; 남기민, 최화강, 2009; 홍현방, 2005), 종교성(홍현방, 2002)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각 자원이 어떻게 관련되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자원관련 연구들은 핵심자원이론에서 통합자원이론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는 자기효능감, 낙관성, 사회적 지지와 같은 여러 핵심자원 자체보다도 이들 자원간 상호관계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강한 통제감을 가질 것이며 보다 기능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를 갖게 되는 것처럼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Cozzarelli, 1993; Rini, Dunkel-Schetter, Wadhwa, & Sandman, 1999). 그러므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도 통합자원모형의 관점에서 이들 자원들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경로는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덧붙여 자원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 해당 자원의 특성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능력과 같은 사회적 자원은 그 자체보다는 개인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고, 건강과 같은 자원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Hobfoll, 1998). 즉 도구나 수단이 되는 사회적 자원은 그것을 이용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내적 특성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도 개인적 자원을 통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자원과 이들 간 관련성의 경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개인적 자원으로, 사회 환경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물질적, 관계적 특성을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원에 대한 Hobfoll(2002)의 주장을 바탕으로, 개인적 자원에는 그 자체로서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개인적 특성인 신체 기능 및 인지 기능을, 사회적 자원에는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지를 포함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적 자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부분적으로는 노인 개인의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과 같은 개인적 자원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 여러 자원과 성공적 노화의 관련성에 있어서 성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성 노인들의 경우, 남성 노인들보다 평균수명

이 길 뿐만 아니라 남녀의 혼인연령 자체도 차이가 있어 노년기 인구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남성 노인들에 비해 경제적 수준도 낮은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고령으로 인해 여러 신체적 질병에 노출되는 등 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남성 노인집단과 여성 노인집단에게 동일한 생활만족도 모델을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Calasanti, 1996; Pinquart & Sorensen, 2001). 또한 남녀 간에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도 찾아볼 수 있다(백지은, 2006; 최혜경, 2011). 그러므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들 간의 경로에 대해서 성차가 있는지 탐색해 볼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녀 노인의 사회적 자원 및 개인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남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노인의 사회적 자원과 성공적 노화 간 관련성을 매개하는 개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살펴봄으로써 노년층의 성공적 노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년기 사회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노년기 사회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 자원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노년기 사회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그림 1. 사회적 자원 및 개인적 자원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모형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60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범주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자	118	37.5
	여자	197	62.5
연령	60대	110	34.9
	70대	160	50.8
	80대	42	13.3
	90대	1	0.3
	무응답	2	0.7
최종 학력	대학졸업	58	18.4
	고등학교 졸업	69	21.9
	중학교 졸업	60	19.0
	초등학교 졸업	120	38.1
	무응답	8	2.5
배우자 유무	유	179	56.8
	무	136	43.2
동거 가족	자녀	178	56.5
	친척/친구	9	2.9
	기타	64	20.3
	없음	50	15.9
	무응답	14	4.4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 32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노인의 성별, 연령대, 생활수준,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의표집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 실시한 질문지는 모두 회수되었으나 그 중 부실 기재되거나 미완성된 8부를 제외하고 총 315부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약 72세였고, 최소 연령은 61세, 최대 연령은 91세였다. 남자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71세, 여자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73세로 나타났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측정도구

성공적 노화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동배(2008)가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공적 노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적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타인수용의 6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동배(2008)는 이 척도의 타당도와 관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노년기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범용적인 척도로 간주되는 ‘노인 삶의 질 척도’와 상관분석을 한 결과 $r = .72$ 로 나타나 공인타당도가 높다고 보고했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93으로 나타났다.

신체 기능

노인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윤환과 동료들(2002)이 개발한 Physical Functioning (PF)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국내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상, 하체 운동능력(mobility),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수단적 일상생활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대한 항목을 바탕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전혀 어렵지 않다’(3), ‘약간 어렵다’(2), ‘매우 어렵다’(1), ‘전혀 할 수 없다’(0)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기능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척도의 점수화는 각 항목의 점수(0-3)를 더한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후 다시 응답 최고 점수인 3으로 나누어 100을 곱함으로써 총점이 100이 되도록 산출한다. PF척도는 개발 당시 내적 합치도가 .92였고, 준거관련타당도와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었다(이윤환 등, 2002).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인지 기능

노인의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Treffinger (2000)의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CPS) 체크리스트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창의적 사고 능력과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식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Treffinger(2000)는 이 척도가 창의적 사고 능력 및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들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 준거관련타당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Treffinger, 200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

노인의 경제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김재중(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재중(2008)은 전문가 및 노인대상 면접을 바탕으로 이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내적 합치도가 .62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5문항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한 문항을 제거하고 4문항의 점수를 이용해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4문항으로 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67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가족 및 친구나 친척의 지지를 평가하기 위해 맥아더 연구(Seeman et al, 1995)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원의 지지는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정서적 지지 및 도구적 지지로 구성된다. 정서적 지지는 배우자, 자녀, 친척 및 친구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 및 자신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고, 도구적 지지는 배우자, 자녀, 친척, 친구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들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지 대상을 배우자, 자녀, 친구/친척으로 구분하였고, 이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배우자 지지, 자녀 지지, 친구/친척지지는 각각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식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지지원으로부터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배우자의 경우, 생존해 있는 경우도 있고 사별한 경우도 있으므로, 배우자 지지와 자녀 지지의 평균을 이용해 가족 지지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배우자 지지, 자녀 지지, 친구/친척 지지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α 값 .88, .91, .9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노인들을 일대일로 면접할 때의 주의할 점을 확인하였고,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체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본 조사 실시 전, 총 3회에 걸쳐 8명의 면접자들을 훈련시켰다. 노인들의 경우, 연령, 신체 기능 및 인지 수준에 따라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문항 이해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훈련을 통해 면접자들에게 노인 면접 시 태도와 주의할 점 등을 주지시켰다.

본 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 3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의 연령,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유의표집하였고, 노인복지

관, 사회복지관, 교회, 성당 등에 미리 연락을 취해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노인 1인 당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20~40분 정도였다. 면접 시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경우,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게 하였고,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면접원이 구두로 질문한 후 응답을 설문지에 기록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중 부실 기재되거나 미완성된 8부를 제외하고, 총 315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연구변인들의 특성 및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의 성차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이용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에 IBM SPSS 20.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은 표 2에 제시되어

표 2. 연구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N=315)

	<i>M</i>	<i>SD</i>	가족 지지	친구/친척 지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성공적 노화
경제적 수준	3.05	.92	-.02	-.03	.37**	.07	.07
가족 지지	3.84	.79		.56**	.00	.34**	.53**
친구/친척 지지	3.45	.92			-.03	.30**	.42**
신체 기능	3.33	.72				.16*	.01
인지 기능	3.05	.53					.48**
성공적 노화	3.00	.42					

* $p < .05$. ** $p < .01$.

있다. 먼저, 사회적 자원인 경제적 수준과 가족 지지, 경제적 수준과 친구/친척 지지는 별다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지는 모두 노인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자원이지만, 서로 상당히 독립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인 가족 지지와 친구/친척 지지 간에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고 실질적으로도 의미 있는 정적 관련성($r = .56, p < .01$)이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의 지지를 높게 지각한 노인들이 친구나 친척의 지지도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지지원이 다르더라도 사회적 지지의 수준 간에는 상당히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적 자원을 살펴보면,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간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약한 정적 관련성($r = .16, p < .05$)이 나타났다. 즉,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서로 관련이 있지만, 관련성의 크기는 이들이 구별되는 특성임을 보여주었다. 끝으

로 노인이 보고한 성공적 노화는 이변량 수준에서 사회적 지지인 가족 지지($r = .53, p < .01$)와 친구/친척 지지($r = .42, p < .01$), 개인의 인지 기능($r = .48, p < .01$)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였고, 경제적 수준이나 개인의 신체 기능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효과 모형과 완전 매개 효과 모형을 대안 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적합도를 비교해 보았다. 이들 모형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외한 모든 연구변인들은 측정 변인으로 투입되었고, 가족 지지와 친구/친척 지지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고려해 이들 두 변인을 지표변인으로 한 사회적 지지를 잠재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개인적 자원인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의 이론적, 경험적 관련성을 바탕으로 신체 기능이 인지 기능을 통

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를 설정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신체발달 측면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 기능이 쇠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성공적 노화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차적 분석에서도 신체 기능과 성공적 노화의 이변량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이론적 설정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연구모형은 사회적 자원인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 자원인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통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도 포함하고 있다. 즉, 연구모형은 사회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와 개인적 자원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안 모형인 직접 효과 모형은 사회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 모두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만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평행하게 성공적 노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한 모형이다. 또 다른 대안 모형인 완전 매개 효과 모

형은 사회적 자원인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지가 개인적 자원인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통해서만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완전 매개 모형은 사회적 자원과 성공적 노화의 관련성이 개인적 자원을 통해서만 나타나도록 설정한 것이다.

표 3에는 이들 세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직접 효과 모형은 여러 지표를 바탕으로 볼 때 매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 매개 효과 모형은 직접 효과 모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이는 χ^2 차이검증을 통한 적합도 비교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지만($\Delta\chi^2 = 12.41$, $\Delta df = 2$, $p < .01$), 완전 매개 효과 모형의 적합도는 여전히 수락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끝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한 결과, 연구모형은 완전 매개 효과 모형보다 유의하게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Delta\chi^2 = 77.63$, $\Delta df = 2$, $p < .001$). 연구모형의 χ^2 값은 4.18 ($N = 315$, $df = 4$, $p = .38$)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모형의 분산/공분산 행렬과 표본 자료에서 산출된 분산/공분산 행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IFI 값이 1.0, CFI 값이 .99로 나타났고,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표 3. 연구모형과 대안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모형	χ^2	df	p 값	IFI	CFI	RMSEA	$\Delta\chi^2$
직접 효과 모형	94.22	8	<.001	.768	.759	.185	-
완전 매개 효과 모형	81.81	6	<.001	.797	.788	.201	12.41**
연구모형	4.18	4	.382	1.00	.999	.012	77.63***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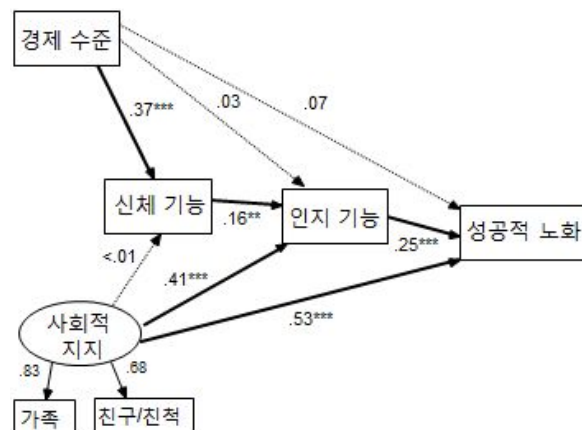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자원의 부분 매개 효과 모형
 ** $p < .01$. *** $p < .001$.

값이 .01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에는 연구모형의 표준화경로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자원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수준은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인적 자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개인적 자원인 인지 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 기능이 우수했고, 이는 다시 우수한 인지 기능을 통해 성공적 노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적 수준이 노인의 인지 기능이나 성공적 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노인이 지각한 높은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인지 기능을 매개로 하여서도 성공적 노화와 연결되었다. 덧붙여, 이들 사회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은 노인의 성공적 노화 총 변량 중 46%를 설명하였다.

3. 연구모형의 성차에 대한 분석 결과

노인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이용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남자노인집단과 여자노인집단에서 사회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직, 간접적 경로 8개의 계수를 자유롭게 산출하도록 한 모형과 8개 경로에 동일한 문자로 제약을 가한 모형을 비교하였다. χ^2 차이검증을 한 결과, 두 모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Delta\chi^2 = 19.89$, $\Delta df = 8$, $p = .011$). 이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남자노인집단의 경로와 여자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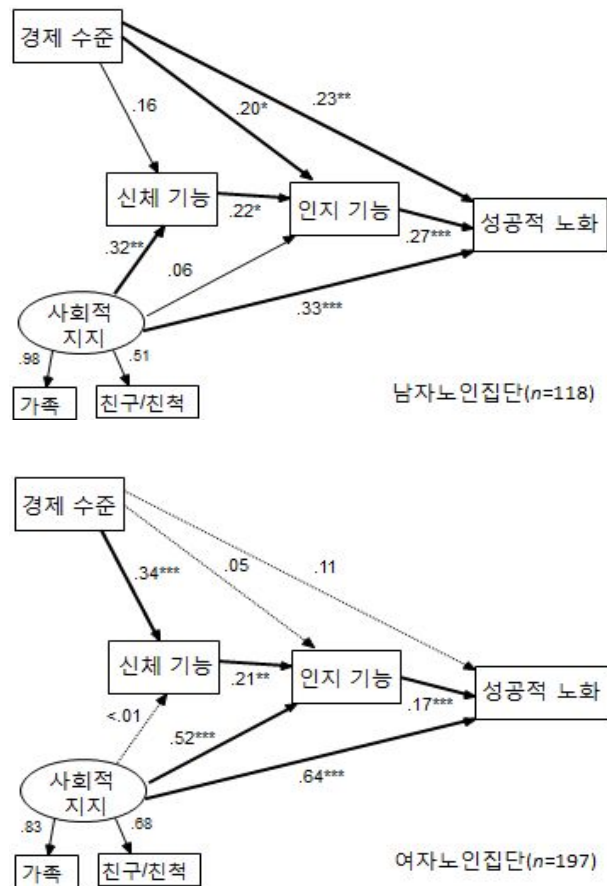


그림 3. 남자노인집단과 여자노인집단의 모형 내 표준화 경로계수

* $p < .05$. ** $p < .01$. *** $p < .001$.

집단의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남자노인집단의 모형과 여자노인집단의 모형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의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개인적 자원은 성공적 노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노인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 수준은 남자노인집단의 경우,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개인적 자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적 자원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노인집단의 경우, 경제수준은 성공적 노화에 개인적 자원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남자노인집단의 경우, 신체 기능과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 반면, 여자노인집단의 경우 인지 기능과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쳤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 남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원이 개인적 자원을 거쳐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가족 지지와 친구/친척 지지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원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노인들이 친구나 친척의 지지도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지지원이 다르더라도 사회적 지지 간에는 상당히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간에는 약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간의 관련성을 강조한 Rowe와 Kahn(1997, 1998)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경제적 수준과 가족 지지, 경제적 수준과 친구/친척 지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지는 모두 노인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자원이지만, 서로 상당히 독립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와 경제적 자원은 독립적으로 정신건강을 예측한다는 Martin(200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끝으로, 성공적 노화는 가족 지지와 친구/친척 지지, 인지 기능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공적 노화에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러 연구결과(강

인, 2003; 성혜영, 조희선, 2005; 임은실, 2003; 하은호, 이영휘, 2004)나 성공적 노화가 개인의 인지 기능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보인다는 Tabbarah와 동료들(Tabbarah, Crimmins, & Seeman, 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적 자원의 매개효과는 사회적 자원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먼저, 노인의 경제적 수준은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개인적 자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 기능이 우수했고, 이는 다시 우수한 인지 기능을 통해 성공적 노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직접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영양상태도 양호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수준이 신체적, 기능적 건강관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경제적 자원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자원이라기보다 가치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원으로 분류한 Hobfoll(2002)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이뉴잇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Collings, 2001)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물질적 요인보다는 관념적 요인이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수준과는 달리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인지 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지각한 높은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인지 기능을 매개로 하여서도 성공적 노화와 연결되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노인의 인지 기능이 양호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동시에 인지 기능이 양호한 노인들이 사회적 지지를 보다 많이 받는다고도 볼 수도 있다.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미국 사회와는 달리 한국과 같이 가족주의가 발달하고 친족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 사회적 지원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 노화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신영희, 이해정, 2009)도 이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이 지각한 높은 사회적 지지가 인지 기능을 매개로 하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인지 기능도 향상되어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Seeman과 동료들(Seeman, Lusignolo, Albert, & Berkman, 2001)의 연구결과나 Harber, Einev-Cohen과 Lang(2007)의 자원인식모델(the resources and perception model)로도 설명할 수 있다. 자원인식모델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상승하거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자원을 축적한 것으로 느끼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보다 정확해지므로 자신이

처한 위협이나 어려움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자신이 자원을 덜 축적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러한 위협이나 어려움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도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남자노인집단과 여자노인집단 간에 사회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개인적 자원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경호, 김지훈, 2009; Strawbridge, Wallhagen, & Cohen, 2002)나 신체적 상태뿐 아니라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적 수행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주관적 건강은 노년기의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Pinquart와 Sorensen의 연구(2001)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경로는 노인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자노인집단의 경우 경제수준은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지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생계부양자로서의 도구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자노인집단의 경우 경제수준이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상의 연구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성보다 남성의 생활만족도를 강하게 예측한다는 Pinquart와 Sorensen(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인지 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직업이 인지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주요 영역이라는 Rowe와 Kahn(1998)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즉, 남성노인의 경우 경제수준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성의 삶에서 도구적, 직업적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이것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성공적 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노인뿐 아니라 직장남성들이 인식하는 중년기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제적 측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연구결과(곽금주, 민하영, 김경은, 최지영, 전숙영, 2011)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교육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특히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에서 생활만족도가 향상되고 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신복기 등, 2006)에 비추어 볼 때에 노인교육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공적 노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남자노인집단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신체 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남성의 신체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공적 노

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의 사회관계망이 신체 기능을 얼마나 예측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관계망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가 신체적 기능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Everard, Lach, Fisher, & Baum, 2000)나 사회관계망의 크기는 신체 기능 감소를 막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eeman & Chen, 2002; Unger, McAvay, Bruce, Berkman, & Seeman, 1999)를 지지하는 것이다. Baltes(1996)도 건강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자노인들의 우수한 신체 기능이 경제적 수준이 아닌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물질적 소유보다 관계적 보살핌이 남자노인들의 신체 기능유지와 관리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노년기의 경제적 능력이 감소되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이를 보상해 나가는 것은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여자노인집단의 경우 경제적 수준은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자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적 수준이 직접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남자노인과는 달리 여자노인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영양공급이나 신체 기능을 관리하는데 유리하며, 결과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보다 평균수명이 길고 따라서 고령으로 인해 신체 기능상의 문제에 더욱더 많이 노출

될 수 있으므로 남성노인집단과 여성노인집단에 동일한 생활만족도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Pinquart와 Sorensen(2001)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나아가 신체 기능은 다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여자노인들의 신체 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자노인들은 물질적 자원이 있다면 주변의 관계적 보살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신체 기능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여자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지 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노인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인지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수준은 성공적 노화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지지는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표현적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보다 관계지향적인 속성이 강하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Unger와 동료들(Unger et al., 199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나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라는 자원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Baltes와 Baltes(1990)가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최적화 모델’에서 주장하듯이

사회적 지지는 경제나 인지, 신체 기능 등의 여러 자원의 상실을 보상해 주는 중요한 자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원모델에서도 스트레스 상황은 여러 자원을 고갈시키고 불안수준을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수준은 정신적 건강을 예측해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많은 자원의 상실을 경험하는 노년기의 성공적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상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한국 사회에서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볼 때 사회적 자원인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지, 개인적 자원인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은 성공적 노화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자원은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인적 자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들 자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각 자원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은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지지는 인지 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탐색적 분석 결과, 이러한 경로는 노인의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주요 변인들을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자료가 단일 보고자 평가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다중 보고자 방식이나

다중 평가방식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노인의 성별에 따라 다른 연구모형을 설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했으므로, 전체 모형을 식별한 후, 주요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공적 노화 모형에의 성차는 보다 큰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하여 자원들 간의 관계와 이들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다면 성공적 노화를 보다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남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원이 개인적 자원을 거쳐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 사회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모형을 제시하고, 성공적 노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자원의 관점에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 인 (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2), 95-116.
- 강혜원 (2012).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연구: 사회적 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곽금주, 민하영, 김경은, 최지영, 전숙영 (2011). 중년 직장 남성의 가족관계, 가족 외 관계 및 직무만족이 행복심리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3), 115-132.
- 김경연, 정여진 (2006). 건강 및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성공적 노화의 요소 탐색. 노인복지연구, 34, 31-54.
- 김경호, 김지훈 (2009). 한국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요인의 구조분석. 한국노년학, 29(1), 71-87.
- 김동배 (2008).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211-231.
- 김미혜, 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김재중 (2008).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나향진 (2002).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3), 131-163.
- 남기민, 최화강 (2009). 취업노인의 생산적 활동요인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45, 347-371.
- 백지은 (2006).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비교 문화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성혜영, 조희선 (2005).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모델. 한국노년학, 26(1), 105-123.
- 신복기, 성향숙, 김수영 (2006).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노인복지연구, 34, 313-336.

- 신영희, 이해정 (2009). 일 도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29(4), 1327-1340.
- 신학진, 전상남 (2009).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요인과 주관적 건강의 영향. *노인복지연구*, 46, 29-52.
- 오창섭, 정원길 (2009). 노인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노화정도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19(2), 1-26.
- 이윤환, 이경중, 한근식, 윤수진, 이연경, 김찬호, 김정림 (2002). 지역사회 노인의 신체기능 평가도구 개발. *예방의학회지*, 35(4), 359-373.
- 임은실 (2003). 저소득 재가노인의 신체적 기능, 우울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상남, 신학진 (2009). 주관적 건강 및 노인차별경험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9(4), 1383-1396.
- 정옥분 (2008). 성공적 노화. 2008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77-92.
- 최혜경 (2011).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기대를 통한 한국 노인들의 소비자 욕구 탐색.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2), 23-38.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
- 하은호, 이영희 (2004). 무료 양로시설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6(1), 47-54.
- 홍현방 (2002).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연구. *한국노년학*, 22(3), 247-261.
- 홍현방 (2003). 노인의 영양건강과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21, 49-72.
- 홍현방 (2005). 생산활동 수준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 203-235.
- Baltes, M. M. (1996). *The many faces of dependency in old 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M. M., & Baltes, P. B.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pp.1-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llings, D. W., Folkman, S., Acree, M., & Moskowitz, J. T. (2000). Coping and physical health during caregiving: The rol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39-142.
- Calasanti, T. M. (1996). Gender and life satisfaction in retirement: An assessment of the male model. *Journals of Gerontology*, 51(B), 18-29.
- Caplan, G. (1964). *Principles of preventative psychiatry*. New York: Basic Books.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 Collings, P. (2001). If you got everything, it's good enough: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in a Canadian Inuit community. *Journal of Cross Cultural Gerontology*, 16, 127-155.
- Cozzarelli, C. (1993). Personality and self-efficacy as

- predictors of coping with abor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24-126.
- Crowther, M. R., Parker, M. W., Achenbaum, W. A., Larimore, W. L., & Koenig, H. G. (2002). Rowe and Kahn's model of successful aging revisited: Positive spirituality - the forgotten factor. *The Gerontologist*, 42(5), 613-620.
- Everard, K. M., Lach, H. W., Fisher, E. B., & Baum, M. C. (2000). Relations of activity and social support to the functional health of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5(4), 208-212.
- Harber, K. D., Einev-Cohen, M., & Lang, F. (2007). They heard a cry: Psychosocial resources moderate perception of others' distres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 296-314.
- Hobfoll, S. E. (1988). *The ecology of stress*. New York: Hemisphere.
- Hobfoll, S. E. (1989).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4, 513-524.
- Hobfoll, S. E. (1998). *Stress, culture, and community: The psychology and philosophy of stress*. New York: Plenum.
- Hobfoll, S. E. (2002).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 307-324.
- Martin, P. (2002). Individual and social resources predicting well being and functioning in later years: Conceptual models, research, and practice. *Ageing International*, 27, 3-29.
- Mroczek, D. K., & Spiro, A. (2005). Change in life satisfaction during adulthood: Findings from the veterans affairs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89-202.
- Pinquart, M., & Sorensen, S. (2000). Influences of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 and competence on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A meta-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15(2), 187-224.
- Pinquart, M., & Sorensen, S. (2001).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 age: A meta-analysis. *Journals of Gerontology*, 56(4), 195-213.
- Rini, C. K., Dunkel-Schetter, C., Wadhwa, P. D., & Sandman, C. A. (1999).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birth outcomes: The role of personal resources, stress, and sociocultural context in pregnancy. *Health Psychology*, 18, 333-345.
- Rowe, J. W., & Kahn, R. L. (1987). Human aging: Usual and successful. *Science*, 237, 143-149.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Rowe, J. W., &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Random House.
- Seeman, T. E., Berkman, L. F., Charpentier, P. A., Blazer, D. G., Albert, M. S., & Tinetti, M. E. (1995). Behavioral and psychosocial predictors of physical performance: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Journals of Gerontology: Medical Science*, 50(A), 177-183.

- Seeman, T. E., & Chen, X. (2002).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physical functioning in older adults with and without chronic conditions: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7, 135-144.
- Seeman, T. E., Lusignolo, T. M., Albert, M., & Berkman, L. (2001). Social relationships, social support, and patterns of cognitive aging in healthy, high-functioning older adults: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Health Psychology*, 20(4), 243-255.
- Strawbridge, W. J., Wallhagen, M. I., & Cohen, R. D. (2002). Successful aging and well-being: Self-rated compared with Rowe and Kahn. *The Gerontologist*, 42(6), 727-733.
- Tabbarah, M., Crimmins, E. M., & Seeman, T. E.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and physical performance: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Medical science*, 57(4) 228-235.
- Thoits, P. (1994). Stressors and problem-solving: The individual as psychological activis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143-160.
- Treffinger, D. J. (2000). *Assessing CPS performance*. Waco, TX: Prufrock.
- Unger, J. B., McAvay, G., Bruce, M. L., Berkman, L., & Seeman, T. E. (1999). Variation in the impact of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on physical functioning in elderly persons: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4(5), 245-251.
- Vaillant, G. E. (2002). *Aging well*. New York: Little, Brown.
- Wells, J. D., Hobfoll, S. E., & Lavin, J. (1999). When it rains it pours: The greater impact of resource loss compared to gain on psychological distr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1172-1182.

1 차원고접수 : 2013. 1. 7.
수정원고접수 : 2013. 2. 15.
최종게재결정 : 2013. 3. 4.

The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 Resour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sources and the Successful Aging of Older Adults

Chung, OckBoon

Lim, JungHa

Chung, SoonHwa

Kim, Kyoung-Eu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social resources (i.e. economic status, social support) and personal resources (i.e. physical functioning, cognitive functioning) relate to successful aging in later life. A sample of 315 participants (aged 61 to 91 years, 62.5% of whom were female) was interviewed in metropolitan city of Seoul, Korea. Structural equation model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authors' hypothesized model, which proposed that personal resources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resources and successful aging. Data were found to provide a satisfactory fit for the hypothesized model. Economic status was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physical functioning but no direct effect on cognitive functioning and successful aging. Social support was linked to successful aging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cognitive functioning but was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physical functioning. Cognitive functioning was a key predictor and mediating variabl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functioning and successful aging. In the exploratory analysis, there were important differences in specific pathways from social resources to cognitive functioning according to gender, although there were similarities in pathways to successful aging for older men and women. That is, cognitive functioning was predicted by economic status and physical functioning for older men, while it was predicted by social support and physical functioning for older women. These findings offer the opportunity for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functioning in successful aging and the different con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to cognitive functioning for older men and women.

Key words : successful aging, resources, physical functioning, cognitive functioning, economic status, social support